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대안 찾는다

기사입력 2013-05-09 08:00:05 |

정책연,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수행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대안 찾는다

정책연,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수행

건설현장 재해 4건 중 3건 가량이 집중된 공사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모색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런 목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방안'이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규모 건설현장에 집중된 기존의 건설재해 방지책을 소규모 건설현장에 확산할 대안을 찾는 작업이다. 실제 건설업 재해자(2011년 기준 2만2782명) 중 74.1%(1만6888명)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소규모 현장의 재해사망자 비율도 절반이 넘는 52.7%에 달한 반면 정부의 건설재해 예방사업 및 투자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실정이다.

연구원은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노동부가 시행 중인 건설업 안전보건 지킴이사업을 포함해 외국의 유사한 재해예방 활동사례를 분석하고 소규모 현장에 특화된 민간협력형 재해예방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정부, 민간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재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10월까지 대안을 도출해 공단에 제시하면 공단 주도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